

## 설명적 의존과 구조적 명제: 메타형이상학의 두 경향을 연결하기

### 1. 서론

현대 형이상학은 크게 두 갈래의 논의 축을 갖는다. 하나는 \*\*존재론적 의존(ontological dependence)\*\*을 둘러싼 연구이다. 이는 어떤 존재자가 다른 존재자에 비해 더 근본적이고 독립적인지, 혹은 반대로 파생적이고 종속적인지를 묻는 문제를 포함한다. 다른 하나는 **명제(proposition) 이론**의 문제이다. 명제는 사유와 언어의 기본 단위로서, 진리와 의미를 담지하는 실체로 이해되며, 그 존재론적 성격과 구조에 대한 분석은 철학적 논의의 중심에 서있다. 두 축은 표면적으로는 별개처럼 보인다. 전자는 실재의 위계적 구조를, 후자는 사고의 논리적 구조를 탐구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는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명제 이론은 단순히 언어철학적 주제가 아니라, 세계의 구조에 대한 반영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구조적 명제(structured proposition) 이론은 명제가 대상과 성질, 관계자의 배열로 구성된 구조임을 강조한다. 명제가 세계를 '어떻게 서술하는지'를 설명하려면, 세계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 반대로, 존재론적 의존 논의는 종종 '무엇이 무엇을 설명하는가'라는 형식으로 표현된다. 설명의 기본 단위가 명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존 이론 역시 명제 이론과 긴밀히 얽힐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차점은 구체적으로 두 난제에서 드러난다. 첫째, **Russell-Myhill 역설**은 구조적 명제 이론이 무제한적인 조합 가능성을 허용할 경우, 역설적 총합을 초래함을 보여준다. Fritz, Lederman, Uzquiano(2021)는 이를 피하기 위해 명제 구조에 일정한 제약, 곧 '폐쇄 조건(closed structure)'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자의적 규칙으로 보일 수 있으며, 왜 명제의 구조가 세계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설명을 요구한다. 둘째, **존재론적 의존의 모달-실존적 정의**는 다양한 형이상학적 사례를 포착하기에 불충분하다. Schnieder(2006)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설명적 의존(explanatory dependence)** 개념을 제시하며, 존재자의 독립성과 종속성을 단순한 가능세계 존재 양상이 아니라 설명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이 두 난제를 하나의 틀에서 다룬다. 나는 구조적 명제 이론의 제약을 설명적 의존이라는 존재론적 개념을 통해 정당화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즉, 어떤 명제가 '구성 가능한가'라는 문제는, 해당 명제가 지시하는 존재자들의 설명적 위계에 의해 제약된다. 명제의 구조적 제약은 임의적 규칙이 아니라, 세계의 의존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명제 이론과 의존 이론은 서로를 뒷받침하는 관계에 놓인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제2절에서는 구조적 명제 이론과 Russell-Myhill 역설, 그리고 Fritz-Lederman-Uzquiano의 폐쇄 조건을 상세히 검토한다. 제3절에서는 존재론적 의존에 관한 전통적 모달-실존적 정의와 그 한계를 분석하고, Schnieder의

설명적 의존 개념을 소개한다. 제4절에서는 구조적 명제의 제약을 설명적 의존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양 이론의 교차점을 밝힌다. 제5절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방법론적 기초로서 개념적 분석을 옹호하며, Jackson(2000)의 논지를 원용해 메타형이상학적 함의를 탐구한다. 마지막 제6절에서는 논문의 기여를 요약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본 논문의 기여는 두 가지다. 첫째, 구조적 명제 이론의 자의적 제약 문제를 존재론적 설명 구조라는 독립적 근거에 의해 정당화한다. 둘째, 존재론적 의존과 명제 이론이라는 분리된 전통을 통합하여, 메타형이상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히 특정 난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존재론적 논쟁과 언어철학적 분석을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더 넓은 철학적 함의를 지닌다.

## 2. 구조적 명제와 '폐쇄 구조'

명제(proposition)에 관한 철학적 논의는 크게 두 전통으로 나뉜다. 하나는 **명제를 단순한 실체적 단위로** 간주하는 관점, 다른 하나는 **명제를 구조적·구성적 실재**로 파악하는 관점이다. 전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명제가 불가분적 단위이자 추상적 실체이며, 의미론의 기본 항으로 주어진다. Frege의 '사고(Gedanke)' 개념이나, 일부 실체론적(platonist) 해석이 그 예이다. 반면 후자는 명제를 복합체로 보고, 명제의 의미와 진리를 그 구성 요소와 배열에서 설명하려 한다. Russell의 기호논리학적 분석, 그리고 현대의 구조적 명제 이론(structured propositions theory)이 이 전통을 잇는다

구조적 명제 이론은 다음과 같은 직관을 반영한다. "눈은 희다"라는 문장을 이해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불가분적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눈)과 성질(희다), 그리고 이 둘을 결합하는 '속성 귀속'이라는 관계적 구조를 파악한다. 이때 명제의 진리조건은 바로 이러한 구성 성분들의 실제적 결합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구조적 명제는 언어적 표상에 대한 해명뿐 아니라, 세계의 구조적 반영이라는 실재론적 함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 이론은 곧바로 **Russell-Myhill 역설**이라는 난제를 마주한다. Russell-Myhill 역설은 집합론적 총합과 유사한 방식으로 발생한다. 구조적 명제 이론이 임의의 함수적 조합이나 속성 귀속을 통해 무제한적으로 새로운 명제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특정한 명제들의 집합이 스스로를 참조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그 결과, '모든 명제들의 집합'을 지시하는 명제가 동시에 존재하고, 이는 곧 Russell의 역설이나 Cantor류 대각선 논증과 같은 모순을 낳는다.

이 역설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명제를 단순한 추상적 실체로 취급하는 견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난점이다. 다시 말해, 구조적 명제 이론의 핵심 장점인 '구성적 설명력'이 동시에 그 이론의 잠재적 치명타를 불러오는 것이다. 명제를 무제한적으로 조합 가능한 구조로 이해하면, 바로 그 무제한성이 역설을 유발한다.

이에 대한 최근의 중요한 대응이 바로 **\*\*Fritz, Lederman & Uzquiano(2021)\*\***가 제시한

‘폐쇄 구조(closed structure)’ 조건이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구조적 명제는 결코 무제한적으로 조합되지 않으며, 특정한 **형식적 제약**에 의해 그 생성이 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약은 일종의 ‘폐쇄성 조건(closedness condition)’으로, 명제의 구성 규칙을 제한하여 Russell-Myhill류의 역설적 명제 구성을 원천 차단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폐쇄 구조는 명제 형성의 규칙을 메타논리적 층위에서 제어한다. 가령, “任意의 함수적 조합이 항상 새로운 명제를 산출한다”는 무제한적 공리를 거부하고, 명제 구성이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한다. 이로써 잠재적으로 역설을 낳을 수 있는 자기 지시적 명제나 무제한적 집합 명제는 구성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조적 명제 이론은 안정성을 회복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근본적 문제가 남는다. 왜 하필 이와 같은 폐쇄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단순히 역설을 피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라면, 이는 임의적 규약에 불과하다. 즉, “구조적 명제의 조합 가능성은 무한하다”라는 직관을 버리고, “명제 형성은 제한된다”라는 직관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그것이 단순히 ‘역설 회피’를 위해서라면, 이는 존재론적·형이상학적 설명을 결여한 **규범적 제약**일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명제의 구조적 제약은 단순히 논리적 안전장치인가, 아니면 세계의 존재론적 구조를 반영하는 것인가? 구조적 명제가 세계의 구조를 반영한다고 할 때, 그 반영의 방식은 단순한 논리적 모형이 아니라, 존재자들 간의 **설명적 의존 관계**를 담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 명제의 구성 가능성 자체가 세계의 의존 구조에 의해 규율된다고 본다면, 폐쇄 조건은 더 이상 자의적 규약이 아니라, 존재론적 사실에 대한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요컨대, 구조적 명제 이론은 그 설명력을 유지하면서도 역설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제약을 도입해야 한다. Fritz, Lederman & Uzquiano의 ‘폐쇄 구조’는 그 제약의 한 구현이다. 그러나 이 제약이 진정한 철학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적 필요를 넘어 **존재론적 의존**이라는 형이상학적 개념과 결부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대안, 곧 Schnieder의 ‘설명적 의존’ 개념을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 3. 존재론적 의존과 설명적 의존

존재론적 의존(ontological dependence)의 개념은 형이상학에서 근본성(fundamentality)을 논의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아왔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어떤 사태가 다른 사태에 의존한다는 직관을 갖는다. 예컨대 “책상의 존재는 분자의 존재에 의존한다”거나 “색깔의 존재는 그것을 가지는 대상의 존재에 의존한다”라는 판단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러한 직관을 형식적으로 정식화하려는 시도는 오래도록 난관에 부딪혀왔다.

#### 3.1 모달-실존적 정의

가장 널리 받아들여져 온 정의는 다음과 같은 모달-실존적(modal-existential) 조건이다.

(DE) A가 B에 의존한다 =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A가 존재한다면, B도 존재한다.

이 정의는 간명하다. A가 존재하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B도 반드시 존재한다면, A는 B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멍의 존재는 그 구멍을 포함한 물체의 존재에 의존한다. 어떤 가능세계에서 구멍이 존재한다면, 그 세계에는 반드시 해당 물체가 존재한다.

그러나 (DE)는 곧바로 문제를 드러낸다. 첫째, 이 정의는 **\*\*잘못된 긍정(false positives)\*\***을 허용한다. 예컨대, “태양”의 존재는 “ $1+1=2$ ”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태양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수학적 진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태양이 수학적 진리에 ‘의존한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둘째, (DE)는 **\*\*잘못된 부정(false negatives)\*\***을 산출한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보자. 어떤 부분이 존재할 때 전체가 존재하는 것은 필연적이지 않다. 전체가 분해된 세계에서도 부분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부분은 전체에 종속적이다. (DE)는 이러한 의존 관계를 포착하지 못한다.

### 3.2 본질 개념과 존재론적 의존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Fine(1994)은 **본질(essence)** 개념을 도입한다. Fine에 따르면, 어떤 대상의 본질적 속성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constitutively 결정하는” 속성이다. A가 B에 의존한다는 것은 A의 본질에 B의 존재가 포함되는 경우라고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집합 {a, b}의 본질에는 a와 b의 존재가 포함된다. 따라서 집합은 그 원소들에 의존한다.

Fine의 접근은 (DE)의 결함을 상당 부분 해소한다. 수학적 진리에 대한 태양의 존재는 태양의 본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잘못된 긍정을 막을 수 있고, 부분-전체의 경우에도 전체의 존재는 부분의 본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계를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 개념 자체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문제가 남는다. “본질”이라는 개념은 형이상학적으로 풍부하지만, 이를 엄밀히 형식화하는 데에는 여전히 논란이 따른다.

### 3.3 설명적 의존

이런 맥락에서 Schnieder(2006)는 **\*\*설명적 의존(explanatory dependence)\*\***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그는 존재론적 의존을 가능세계적 존재 양상으로 정의하거나, 본질 개념을 직접 호소하는 대신, **\*\*설명(explanation)\*\***을 중심에 놓는다.

A가 B에 의존한다 = A의 존재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B의 존재를 전제한다.

이 정의는 두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첫째, 설명적 의존은 **잘못된 긍정/부정 문제를 회피**한다. 태양의 존재를 설명할 때 우리는 수학적 진리를 전제하지 않는다. 반대로 부분의 존재를 설명할 때, 전체의 존재가 반드시 전제된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설명적 의

존은 독립성과 실체성(substance) 개념을 복원한다. 전통 형이상학에서 “실체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가능세계적 생존 조건이 아니라 설명적 독립성이었다. Schnieder는 바로 이 점을 현대 형이상학으로 되살린다.

### 3.4 설명적 의존의 함의

설명적 의존의 채택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첫째, 의존 관계는 단순한 존재 양상이 아니라 **정당화된 설명 구조**라는 층위에 속하게 된다. 이는 존재론적 위계를 단순히 “보다 기초적인 것과 덜 기초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무엇을 설명하는가”라는 방식으로 재구성한다. 둘째, 설명적 의존은 명제 이론과의 연결 고리를 마련한다. 설명은 항상 명제를 매개로 표현된다. 따라서 설명적 의존의 도입은 존재론적 의존을 명제적 층위에서 다룰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결국 Schnieder의 제안은 단순한 정의상의 수정이 아니라, 존재론적 의존 논의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존재론적 의존은 더 이상 가능세계적 양상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설명적 정당화 구조에 의해 규정된다. 이는 구조적 명제 이론과의 접합 가능성을 내포한다. 명제가 구성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명제가 반영하는 존재자의 설명적 위계에 달려 있으며, 이 점은 다음 절에서 본격적으로 탐구될 것이다.

## 4. 두 이론의 접합 — 명제 구조와 설명적 의존

앞선 두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조적 명제 이론은 명제의 구성적 성격을 설명하는데 강점을 가지지만, Russell-Myhill 역설에 취약하며 이를 막기 위해 폐쇄 조건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은 자칫 자의적 규약처럼 보일 수 있다. 반면, 존재론적 의존 이론은 세계의 위계적 구조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지만, 모달-실존적 정의의 한계로 인해 본질이나 설명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 두 난제를 결합적으로 검토할 때, 우리는 폐쇄 조건을 단순한 기술적 장치가 아니라, 세계의 **\*\*설명적 구조(explanatory structure)\*\***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4.1 명제 구조의 제약과 설명적 위계

Russell-Myhill 역설은 ‘무제한적 명제 형성’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된다. 만약 어떤 대상과 성질, 관계자가 주어진다면, 그 모든 조합은 새로운 명제를 형성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적 의존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조합이 설명 가능한 명제를 산출하지는 않는다**. 어떤 명제는 설명적 기반을 갖지 못하므로, 설명적 구조 속에서 배제된다. 예컨대 “모든 명제를 포함하는 집합에 관한 명제”는 자기지시적 구조를 형성하지만, 그 존재를 정당화할 독립적인 설명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설명적 의존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명제는 ‘구성 불가능’하다. 이로써 폐쇄 조건은 기술적 제약이 아니라 설명적 위계의 반영으로 정당화된다.

## 4.2 설명적 의존을 통한 명제-존재 연결

명제는 세계를 기술하는 단위이자, 동시에 세계를 설명하는 단위이다. 따라서 명제의 구성 가능성은 세계의 설명적 구조와 병행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원리를 제안할 수 있다.

(EP) 어떤 명제가 구성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명제의 성분들이 설명적 위계 속에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집합  $\{a, b\}$ 에 관한 명제는  $a$ 와  $b$ 의 존재에 대한 설명적 전제가 가능하므로 구성 가능하다. 반면, Russell-Myhill류의 자기지시적 명제는 설명적 전제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구성 불가능하다. 이 원리를 통해 구조적 명제의 제약은 존재론적 설명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 4.3 반론과 응답

이러한 결합에 대한 첫 번째 반론은 다음과 같다. “폐쇄 조건은 순전히 논리적-형식적 안장치일 뿐, 존재론적 설명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이 반론은 설명적 의존의 형이상학적 위상을 간과한다. 설명적 의존은 단순한 심리적-언어적 행위가 아니라, 세계의 구조를 반영하는 실재론적 관계로 해석된다. 따라서 명제의 제약을 설명적 구조에 귀속시키는 것은 우연적 연결이 아니라 필연적 반영이다.

두 번째 반론은 “설명적 의존은 본질적으로 모호하다.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명제의 구성 가능성을 규정하는 것은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Fine(1994)의 본질론을 보완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 본질 개념은 설명적 의존을 구체화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어떤 명제가 구성 가능하다는 것은 해당 명제가 반영하는 대상들의 본질적 설명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과 동등하다.

## 4.4 메타형이상학적 함의

명제 구조와 설명적 의존을 결합하는 시도는 메타형이상학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이는 존재론적 논쟁이 단순히 “어떤 존재자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치지 않고, “어떤 명제가 정당하게 구성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존재론적 논쟁의 결과는 곧 명제적 구성 가능성의 지도와 맞닿아 있다. 둘째, 이는 언어철학과 형이상학의 경계를 허물며, 명제 이론이 세계의 구조를 설명하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합은 양화사 다양성(quantifier variance) 논의와도 연결된다. 양화사가 지시하는 범위는 단순한 언어적 선택이 아니라, 설명적 구조의 반영일 수 있다. 이 경우, 존재론적 논쟁에서 양화사 선택을 둘러싼 분쟁은 단순한 언어 규약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설명적 위계를 올바르게 반영하는 명제 구성 방식의 문제로 해석된다.

## 4.5 소결

결국 구조적 명제 이론의 제약은 존재론적 설명 구조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폐쇄 조건은 단순히 역설을 회피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가 아니라, 세계의 설명적 위계가 언어적·논리적 층위에 반영된 결과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명제 이론과 의존 이론의 통합적 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메타형이상학적 탐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 5. 개념적 분석과 방법론적 함의

앞서 우리는 구조적 명제 이론의 제약을 설명적 의존 개념으로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 명제 이론과 존재론적 의존 이론을 통합하는 틀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한 가지 근본적인 방법론적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형이상학적 개념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개념적 분석(conceptual analysis)\*\***은 여전히 유효한 방법론인가, 아니면 Quine이 비판했듯 '자연화된 형이상학(naturalized metaphysics)'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

### 5.1 개념적 분석의 옹호

Frank Jackson(2000)은 『From Metaphysics to Ethics』에서 개념적 분석을 강력히 옹호하였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i) 철학의 과제는 우리의 개념적 틀을 명료히 하고, (ii) 이를 통해 세계에 대한 이해를 구조화하는 것이며, (iii) 개념적 분석은 과학적 사실과 양립 가능할 뿐 아니라, 그 전제조건이 된다. 우리의 명제-존재론 논의도 마찬가지다. “명제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존재자가 어떻게 의존하는가?”라는 질문은 우리의 개념적 직관을 해명하고 체계화하는 작업 없이는 진전될 수 없다.

특히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설명적 의존에 따른 명제의 제약'은 순수한 경험적 연구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결론이다. 그것은 개념적 구조에 대한 반성, 즉 우리가 무엇을 '설명'으로 간주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분석에 기반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기여는 경험적 사실 발견이 아니라, **개념적 구조를 통해 형이상학적 문제를 재구성하는 데 있다.**

### 5.2 Quine적 반개념주의와의 대조

물론 Quine(1951) 이후 개념적 분석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왔다. Quine은 분석-종합 구분을 부정하며, 철학적 분석을 언어적 규약에 불과한 것으로 환원했다. 그의 관점에서 존재론적 논쟁은 궁극적으로 과학적 이론 선택의 문제이며, 철학적 분석은 그저 “언어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지나치게 환원적이다. 구조적 명제 이론의 제약이나 존재론적 의존의 설명적 해석은 단순한 과학적 사실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학적 이론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토대가 되는 개념적 구조를 다루는 것이다. Quine적 반개념주의는 과학적 실재론의 형식적 틀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특정한 개념적 분석에 암묵적으로 의존하

고 있다.

### 5.3 본 논문의 방법론적 위치

따라서 본 논문은 Jackson의 입장에 가깝게, 개념적 분석을 형이상학적 탐구의 정당한 방법론으로 옹호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개념적 분석은 단순한 사전적 정의의 분석이 아니라, **설명적 구조와 의존 관계를 밝히는 분석적-구조적 탐구**다. 이는 형이상학을 언어철학적 문제로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언어와 세계의 연결을 매개하는 작업이다.

결국 본 논문의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명제**는 세계의 구조를 반영하는 단위이다.
2. **존재론적 의존**은 설명적 구조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
3. 따라서 명제 이론과 의존 이론의 접합은 개념적 분석의 전형적 과제다.

이러한 입장은 형이상학을 과학적 탐구와 대립시키지 않으면서도, 고유한 철학적 작업으로서의 독자적 지위를 확보한다.

## 6. 결론

본 논문은 구조적 명제 이론과 존재론적 의존 이론이라는 두 전통적으로 분리되어 온 연구 영역을 통합적으로 탐구하였다. 출발점은 구조적 명제 이론이 직면한 Russell-Myhill 역설과, 이를 회피하기 위한 Fritz, Lederman & Uzquiano(2021)의 폐쇄 조건이었다. 이 제약은 명제 이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불가피하지만, 단순한 기술적 장치로 남는다면 철학적 정당성을 결여하게 된다. 이에 대한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은, 이러한 제약이 세계의 **\*\*설명적 구조(explanatory structure)\*\***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먼저 존재론적 의존의 고전적 정의, 즉 모달-실존적 조건(DE)을 검토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 정의는 잘못된 긍정과 잘못된 부정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충분치 않았다. 이어 Fine의 본질론을 경유하여, Schnieder가 제시한 설명적 의존 개념을 도입하였다. 설명적 의존은 존재자의 위계를 단순히 가능세계적 생존 조건이 아니라, 설명적 전제와 정당화의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공한다.

그 결과, 구조적 명제의 구성 가능성은 존재자의 설명적 위계와 직결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명제가 구성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반영하는 대상들이 설명적 전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써 Russell-Myhill류의 자기지시적 명제는 설명적 기반을 결여하기 때문에 구성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다. 따라서 폐쇄 조건은 임의적 규약이 아니라, 세계의 설명적 구조에 뿌리를 둔 제약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통합적 틀은 몇 가지 중요한 기여를 갖는다. 첫째, 구조적 명제 이론의 난제를 해

결하면서도, 그 제약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한다. 둘째, 존재론적 의존 개념을 설명적 층위로 재구성하여, 명제 이론과 존재론 이론을 긴밀히 연결한다. 셋째, 메타형이상학적 차원에서 개념적 분석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형이상학을 단순한 언어 규약 분석이나 과학적 환원으로부터 독립된 탐구로 위치시킨다.

그러나 본 논문은 여전히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무엇보다 '설명적 의존' 개념 자체의 정밀한 형식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설명이 어떤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설명적 전제가 정확히 어떤 논리적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본 논문은 명제 이론과 존재론 이론의 교차점을 탐구했지만, 이를 구체적인 언어철학적 사례—예컨대 태도 보고나 지시 표현의 의미론—에 적용하는 작업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방법론적 선택, 즉 개념적 분석의 옹호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Quine적 자연주의와 Jackson적 분석주의 사이에서, 본 논문은 후자의 입장에 기울었지만, 양자의 긴장을 해소하는 더 넓은 메타철학적 틀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구조적 명제와 존재론적 의존이라는 두 문제군을 하나의 통합적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형이상학적 탐구가 단순히 독립된 논제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교차하며 해명될 수 있는 체계적 구조임을 보여주었다. 존재론적 설명 구조는 단순히 존재자들 간의 위계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명제 이론의 형성 가능성 조건을 규율한다. 이를 통해 형이상학은 세계와 언어, 존재와 사유를 잇는 더 넓은 탐구의 지평을 마련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Fine, Kit. 1994. "Essence and Modality." *Philosophical Perspectives* 8: 1–16.
- Fritz, Peter, Harvey Lederman, and Agustín Rayo (Uzquiano). 2021. "Grounding and the Russell–Myhill Paradox." *Journal of Philosophical Logic* 50(5): 1045–1078.
- Jackson, Frank. 2000. *From Metaphysics to Ethics: A Defence of Conceptual Analys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Quine, W. V. O. 1951. "Two Dogmas of Empiricism." *The Philosophical Review* 60(1): 20–43.
- Schnieder, Benjamin. 2006. "A Certain Kind of Trinity: Dependence, Substance, Explanation." *Philosophical Studies* 129: 393–419.
- Speaks, Jeff. 2009. "Transparency, Intentionalism, and the Nature of Perceptual Content." *Philosophical Studies* 144(3): 419–444.

- Yablo, Stephen. 2014. *Aboutnes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ago, Mark. 2014. *The Impossible: An Essay on Hyperintension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rto, Franz, and Mark Jago. 2019. *Impossible Worl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ecanati, François. 2012. *Mental Fil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rreia, Fabrice, and Benjamin Schnieder (eds.). 2012. *Metaphysical Grounding: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